

“책 제목 ‘별들의 무덤’ 될 뻔 했죠”

BOOK CAFE

소설가 故 최인호 가상 인터뷰

소설 ‘별들의 고향’ 40년 만에 재출간

“신문사에서 책 제목 불길하다며 퇴짜
주인공 경아의 이름도 원래는 ‘노승혜’
경아 모습은 당시 내 아내 그대로 묘사”



70년대 문학의 아이콘 ‘별들이 고향’이 출간 4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별들의 고향’은 영원한 청년작가 최인호 문학의 시작이자 1970년 대 감수성의 혁명을 물고 온 한국문학의 급자이다. 지난 9월25일 별들의 고향으로 떠난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 재출간을 앞두고 그의 인간적 재취가 진하게 묻어나는 ‘작가의 말’을 재출간본 말미에 실었다. 그곳엔 최인호의 문학열정과 패기만만했던 스무 살 청년의 삶 그리고 좌충우돌 일화들이 빼곡하다. 최인호가 ‘작가의 말’에서 밝힌 이야기를 토대로 그와 가상 인터뷰를 했다.

- 최 선생님은 ‘별들의 고향’을 포함해 초기 작품에선 작가의 말을 쓰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왜 그랬나.

“당시엔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 이러저러한 공언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별들의 고향’은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이 소설의 그림자는 작가로서 내 인생에 오랜 동안 부정적인 그림자로 드리울 것으로 예견했다. 난 이 소설에 대한 작가의 말은 먼 훗날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게 작가의 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꺼내 출판된 ‘별들의 고향’ 서문을 그때 쓰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무엇에 거리낄 것이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해도 좋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뒤늦은 지각생의 서문을 썼다.”

- 최 선생님이 ‘별들의 고향’을 일간지에 연재했을 땐 젊은 작가였다. 당시엔 파격이었다는데.

“황순원 박영준 두 선생님께서 신문사 문화부장에게 추천했다고 들었다. 그때 내 나이 스물여섯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인공 이름이 기억되는 문학작품이 거의 없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는 소냐가 나오고 톨스토이의 ‘부활’에서는 카추사가 나온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인 여자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소설



“원고지 위에서 죽고 싶다”던 최인호. 최인호 문학의 시작을 알린 소설 ‘별들의 고향’은 70년대 청년문학의 아이콘의 대표명사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별들의 고향’이 40년 만에 재출간돼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누구나의 가슴속에 한번쯤 깃들었다 스러지는 그런 여인, 평범하기 때문에 누구나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여인의 얘기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 ‘별들의 고향’을 집필하는데 어떤 원천들이 있었나.

“두 개의 원천이 있었다. 하나는 소설을 읽는 재미를 하루하루의 신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이 새롭고 독특해야 하며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서 연재소설의 호흡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이 기억되어 마치 자신의 첫사랑이나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질 것

을 염두에 두었다. 또 한 가지 소설 중간 중간에 현대 시인들의 시를 삽입해 보자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도였다.”

- ‘별들의 고향’ 주인공의 이름이 처음엔 경아가 아니었다고 들었다.

“그렇다. 미리 쓴 줄거리에는 주인공의 이름은 ‘노승혜’였다. 경아로 바뀐 것은 연재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내가 당시 가수 이장희 군에게 써주었던 토크 송의 가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제 연인의 이름은 경아였습니다. 나는 경아가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뒷날 이장희 군은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겨울이야기’라는 제목의 레코드를 냈고 큰 히트를 쳤다. 그래서 노승혜라는 이름을 버리고 경아라는 이름을 택했다. 사실 경아라는 이름이 더 귀엽고 평범하며 보편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책 제목도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맞나.

“내가 고심 끝에 작명한 원래 이름은 ‘별들의 무덤’이었다. 이 제목을 신문사에 가지고 갔더니 신문사 간부가 “조간신문에 재수없게 무덤이라니... 다른 이름으로 고쳐보시라”라며 끊임없이 불렀다. 즉석에서 회의를 통해 ‘별들의 고향’으로 결정했다.”

- 주인공 경아의 실제 모델은 누구인가.

“소설 속 경아는 키 155cm, 가슴둘레 78cm, 몸무게 44kg으로 묘사돼 있다. 어깨 뒤에 큰 점이 하나 있고 하이힐을 신고 다닌다. 연재 도중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실제로 경아와 같은 여인과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고 물어 적이 많았다. 이제와 고백하면 경아의 모습은 당시 내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별들의 고향’은 당시 상, 하권 합쳐 100만권 가량 팔렸다. 인세도 꽤 많았을 텐데.

“맞다. 100만권 가량 팔린 것으로 기억된다. 인세로 당시 황우직이던 서울 강남의 신사동 땅을 사서 빨간 지붕의 양옥집을 지었다. 당시 신문 사회면에 ‘최인호 강남에 호화주택을 짓다’하며 대서특필되기도 했었다.”

- 40년 만에 주인공 ‘경아’와 마주했다. 경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젊은 시절 내가 창조했던 경아는 스물일곱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소원대로 청산가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래를 치면서 날아가 버린 것이다. 경아는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처럼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내 젊은 날의 머나먼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내 앞에 선 누님 같은 꽃이 되어 버렸다. 한때는 내 자신이고 내 분신이고 내 애인이었다. 경아여 이제야말로 헤어질 시간. 잘 가시오. 그리고 안녕.”

연재도 기자 sol@donga.com

‘5 대 11’ 한국기사들 마지막 자존심 지킬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전

韓 박정환 등 5명 진출... 11명에 열세 이세돌 vs 천아오에 16강전 최고 빅게임



지난 9월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에서 대국하는 이세돌(오른쪽)과 천아오에. 이 대회에서 시간패를 당한 이세돌은 8일 16강전에서 천아오에를 상대로 실축에 나선다. 사진제공 | 한국기원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라!”

201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전과 8강전이 오는 8일과 10일 대전광역시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중국에 밀려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한국으로서 이번 삼성화재배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지난 9월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본선 32강전에서 한국은 전기 대회 챔피언 이세돌 9단을 비롯해 랭킹 1위 박정환, 2위 김지석, 6위 박영훈, 17위 안성준 등 5명이 16강에 진출했다. 수적으로 중국의 우세. 중국은 전기 준우승자 구리 9단 등 무려 11명이 16강전 대진표에 포진했다.

● 최고의 빅카드 ‘이세돌 vs 천아오에’

16강전 최고의 빅카드는 이세돌과 중국 랭킹 1위 천아오에 9단의 대결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열 차례 맞붙어 5승 5패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이세돌이 3연패를 당하며 밀리고 있다. 그 중 1패는 더블 일리미네이션(일종의 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치른 이번 대회 32강전에서 당한 시간패이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은 저우루이양 9단과 만났다. 상대전적은 3승 1패로 박정환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김지석은 판원휘, 박영훈은 탕웨이신, 안성준은 구리와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1988년 세계대회가 처음 창설된 이래 120차례 열린 세계대회에서 68회(여자대회 제

외)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바둑최강국으로 군림해 왔다. 특히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우승하며 17년간 우승행진을 이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우승컵을 안지 못해 대기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삼성화재배는 올해 열리는 마지막 국제 개인전이기엔 한국으로서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번 대회의 총 상금규모는 8억원. 우승 상금은 3억원이다.

● ‘1집당 1만원’...기금 마련해 군 부대 지원

매 대회마다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운영으로 세계 바둑팬의 눈길을 끌어온 삼성화재배는 올해 바둑의 세계화를 기치로 월드조를 신설했다. 지난해에 이어 군 부대 바둑보급을 위해 기금도 마련한다. 본선에서 한국기사가 승리할 때마다 1집당 1만원(불계승 30만원)을 적립해 바둑동아리가 개설된 부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32강전이 끝난 현재 364만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지난해에는 육군 제1보병사단을 첫 후원부대로 선정해 연말에 장병들에게 필요한 바둑용품들을 지원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컬처박스

중국 트렌드 알면 세계시장 내 손에

발레·필라테스로 배우는 다이어트



● 트렌드 차이나 (김난도 전미 영 김서영 지음 | 오우아)

‘난도쌤’이 글로벌 트렌드로 눈을 돌렸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중국.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트렌드 또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중국시장을 잡으면 세계시장의 30%는 정복한 셈이다. 이 책은 14억 인구의 거대 중국시장을 현미경으로 낚아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김난도 교수가 3년간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효과적 전략을 제시한다.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선 ‘중국 소비자들은 무엇이 열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2부는 중국인이 갖고 있는 ‘7대 소비DNA’를 추출해 분석했고 3부에선 최근 중국 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해 짚었다. 오피니언리더와 비즈니스맨을 위한 필독서.



● 내 몸의 비온스를 깨워라 (옥주현 지음 | 중앙m&b)

보디 멘토 옥주현이 돌아왔다. 이번엔 ‘30대 맞춤형 다이어트법’, ‘여자의 진짜 미모는 30대에 역전된다’는 메시지를 모토로 마른 몸보다는 품격 있는 몸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운동법은 발레 스트레칭과 필라테스다. 결론은 발레 스트레칭으로 선을 빚고 필라테스로 태를 완성하라는 것. 옥주현이 몸으로 겪어보고 가장 효과를 본 핵심 동작 26가지를 사진 컷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했다. 책을 펴놓고 따라 하다보면 체력과 탄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보는 재미에 읽는 재미, 살빼지는 재미까지 일석삼조를 느끼게 해준다. 연재도 기자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926-증-32390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혈을 삼입술
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 귀두/음경확대
- ✓ 조루/길이
- ✓ 바세린/만곡증
-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 포경/정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남성수술

www.trueman75.co.kr

대표번호 1577-5095

디지털 발기골

1. 발기원리 = 병원에서 봉 입플라트 시술과 같고 약 4인치 콘돔토시로 싸우면 디지털이 혈액을 올려 안 아프게, 길고, 굵게 발기된다.

2. 사정해도 즉시 않고 3 시간간식 발기지속.

3. 즉시 발기 안 되고 조루증 안 없으면 환불 보장.

4. 각종 링, 성기동맥혈 류중전기, 펌프처럼 성기목을 아프게 조여 혈액을 즉시사기 완전발기 발는자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5. 당뇨, 고혈압, 성기 확대자, 전립선암수술자, 90대, 완전발기불능자, 즉시 발기된다.

6. 발기약 안 먹고 발기되고, 표시 안나 아내도 속는다.

7. 성기 작은 사람 혈액을 디지털로 통증 없게 풍선 바람 많이 넣듯 올려, 길고, 굵게 확대한다.

8. 인체에 해가없고, 반영구적 특허품.

※키성장기는 잠잘때만 만들어지는 성장호르몬이 성장판에 잘 공급되게 잠잘때 성장판이 부드럽게 자동열려서 키가 잘 자라게 하는 키성장기

010-9607-9970, 010-2762-2540

입금계좌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

서울시 영등포 대림동 1052-33 / 통산면역센터 2012 영등포 0381 풍타임에디컬

강하게, 오래오래, “황제옥환”

링은 늘어나야 한다!!!! 왜? 아프니까!! 빠지니까!!

이런 불편한 링은 가라!!!

중간에 시든다. 강직도가 약하다. 사정이 빠르다
작아서 아프고, 커서빠지고, 살이썩히고, 피부알러지 등

황제옥환은 진정한 “링어호가”들이 극찬하는 제품입니다!!

황제옥환은?

-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탄력있게 늘어나주기 때문에 착용시 혈관이 튼튼 불거짐으로도 팽창되지만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 더 굵고 더 길게 착용방법에 따라 숨겨진 남성이 최대 길이 연장 효과로 인해 남근의 작고 외소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 착용후 링은 몸속에 살짝 파묻혀서 여성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매우 만족해 합니다.

흑매옥이런?

원석의 나이가 16억7500만년전 천연옥 원석외선 음이온 방사능 92.7로 몸에 지니기만해도 좋은 “기”를 발출수있는데 하울머 합성에 직접착용하면 놀라운 남자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에 의존했던 많은분들이 황제옥환을 착용하면서 약을 끊으셨다는 격려전화를 많이 해주십니다.

▶ 실리온 : MSD(독일안진 보진)에서 안전성인한 제제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인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 제작방법 : 원석과 실리온결합법은 고온(2000°C)의 열에서 약3시간 이상 구워서정착하여 어떠한 힘을 가해도 떨어지지 않아 반영구적입니다.

출원번호 2010-13961

본제품은 제조업체 대성메디칼에서 개발·가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원 : 대성메디칼 상담전화 1566-8856 / 010-9109-3844 입금계좌: 302-0503-1095-11(농협) 예금주박성영

통산면역센터 경부동 제2009-1194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315-1번지